



무등산 눈꽃산행 새해 첫날부터 광주와 전남에 많은 눈이 내렸다. 휴일인 4일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서석대 인근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식당·관광지 복적... 지역경제 활력 솟는다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1> 빛가람혁신도시 시대

이전효과 본격화

2015년은 광주·전남의 대도약이 시작되는 해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본 궤도에 오르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 송정역) 구간의 완전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는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 사업을 점검한다.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혁신도시 이전기관중 13개가 지난해 말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지역경제가 '빛가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연말연시 이주 직원들의 잦은 모임 덕분에 식당가와 유흥가 등이 들쭉거리며 소비활동이 커진데다, 전남지역 관광지도 이주 가족들의

점심 '맛집투어'에 송년회·신년회로 나주 식당에 예약문화
광주 상무지구까지 매출 늘어... 침체된 골프장도 효과 기대

방문으로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전은 지난 연말 각 처·부서별로 빛가람도시에서 첫 송년회를 가졌다. 25곳에 이르는 처급 부서와 딸린 부서만 따져도 한전의 송년회 횟수는 100여 차례에 달했다. 한전뿐 아니라 직원 수가 800여명에 이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덩치 큰 기관들의 송년회가 맞물리면서 나주 시내 '맛집'들의 전화기는 불이 났다. 이 때문에 나주 시민들은 정자 송년 모임조차 못 할 정도로 음식점마다 북새통을 이뤘다.

특별한 회식이 아니더라도 나주 인근 식당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있다. 1500여명이 근무하는 한전의 경우 절반인 800명 가량이 점심시간 구내식당보다 나주시내의 식당을 애용한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나

주 고향'은 이미 수차례 맞았고, 흥어 등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찾아 '음식점 투어'를 하고 있다고 한 음식점 업주는 귀띔했다. 택시로 20~30분 거리에 있는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유흥가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경우 가족 이주 비율이 20%에 이르고, 주말을 맞아 가족이 빛가람도시로 내려오는 일도 잦아지면서 해남과 담양, 목포 등 전남지역 유명 관광지를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포화 상태로 대부분 적자 상태에 직면한 전남지역 골프장도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의 빛가람도시에 대한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공공기관장협의회가

공식 출범, 이전기관의 조기 정착과 그로 인한 지역 발전을 다짐했으며, 올해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5일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원해 의료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센터 뒤에 17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초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했으나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당분간 진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소아과와 내과, 한의과 전문의 등 의료진을 배치해 예방접종 등 진료를 시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 진료·투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5일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7일 한국농어촌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 내 13개 이전기관과 상생협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알립니다

고수들의 명강연... 지식·교양·지혜의 향연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 모습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주요 강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3기 원생 모집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리더들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3월부터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12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社

정부 "설 이산상봉 추진...2~3년 내 전면 생사확인·서신왕래"

새해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 가 성사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및 서신왕래, 수시 상봉행사 개최 등 이

산가족 문제의 상당부분 해결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생사확인 및 서신왕래는 적어도 2~3년 내에는 잘만 하

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만 돼도 이산가족의 한을 상당히 덜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총 6만 8867명으로, 이 중 51.4%가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 2015 신년 인터뷰
- 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 ▶3면
- 2015 새 설계
- 박홍률 목포시장 ▶11면
- 박병중 고흥군수 ▶12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교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乙未年
2015

새해 떠오르는 밝은 해처럼
서민금융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2015년 희망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